

호매칼럼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꽃 축제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온다. 완도에서 바닷길 따라 5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청산도에도 유채꽃 축제가 한창이다. 청산도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서편제이다. 진도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와 딸이 넘어가는 고갯길이 인상적이었다.

‘사월초파일 연등 감돛’이라는 주제로 열린 ‘화연 김선이 판소리 공연’을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관람하였다.

평소 판소리는 볼 기회가 없었지만, 판소리를 좋아하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판소리는 좋만했다. 소리가 끝나고 빗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에 꽃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화연 김선이는 무형유산 동조제 홍보가 보유자로서 심청가 중 심청이가 환생한 장면으로 관객과 만났으며 이은비 전수자가 홍보가 가난 타령 박 타는 대목을 절창으로 관람객의 웃음 보파리를 선사했으며, 특별 출연으로 빗인 가야금 병창 보유자인 황승옥이 조자룡 활 쏘는 대목으로 관람객의 심금을 울렸다.

또한, 무형 문화재 전수자인 김수인이 춘향전의 ‘옥중상봉 어사출도’로 첫 장면을 열어 관객의 마음

을 사로잡았다.

우리의 삶에서 판소리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공연은 평소 김수인 가수를 좋아하는 지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판소리 부르는 시간이 30분이 넘는 절창을 보면서 무대에서 고수와 관객과 호흡을 통해 긴 시간을 공연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긴 박수를 보내주었다.

무대에서 한 마당을 부르는 것을 ‘완창’이라고 한다. 완창은 소리꾼 한 명이 오로지 고수의 북 장단에 의지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것이며, 짧게는 세 시간, 길게는 여덟 아홉 시간까지 소리를 한다.

이와는 달리 ‘절창’은 판소리의 한 대목을 부르는 것으로 이번 공연은 고수와 부채를 든 두 명의 젊은 소리꾼이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판소리의 한 대목을 선정하여 관객과 호흡하며 모노드라마를 펼쳤다.

판소리 한마당으로 소리의 판을 열다

최근 판소리 창극은 국립창극단 김준수, 유태평양, 김수인 등 젊은 단원들은 탄탄한 팬덤의 영향으로 관객이 늘어났다.

공중에서 열린 삼인의 무대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어 판소리와 가요의 믹스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배운 가수는 소리가 뛰여 노래를 듣는이로 하여 귀가 평 뚫린다. 이에, 판소리를 배웠던 음악인들이 가요로 전향하는 이유는 수입, 무대에 설 기회가 적어서일 것이다.

특히 판소리는 남도의 소리다. 남도의 소리인 판소리 가수가 가요로 전향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소리인 창은 다른 음악에 비해 무대에 설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노래는 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데 판소리는 한 무대에서 서 있는 시간이 보통 30분 이상이다. 노력에 비하면 수입이 적

다.

이에 삶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기에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소리인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장단에 맞추어 발림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극적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이다.

12마당인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5마당만 전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월초파일 연등 감돛’ 공연은 우리의 판소리 다섯 마당이 절창으로 관객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판소리를 명창인 김선이 소리가 끝나자 관람객에서 한 스님이 일어나 ‘감사합니다.’라고 합장하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가의 소리를 들을 기회에 감사하였다.

이는 남도의 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와 빛고을 전수관이 노력이었다면 소중한 시간이 없

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흥이 난 시간은 남도의 소리 육자배기와 아리랑을 부르며 관객과 호흡하는 시간이었다. 아리랑은 어릴 적 화전놀이를 하는 아낙네들이 불렀던 노래로 누구나 귀에 익숙해져 어깨춤을 덩실 덩실 추며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번 공연에서도 모든 관객이 함께 부르며 춤을 추는 신명 나는 시간이었다.

온 들뜬에 유채꽃이 출렁이는 계절이다. 서편제에서 진도 아리랑은 청산도 고갯길을 넘어가며 부르는 노래다.

서편제 영화에서 감독 임권택은 소설가 이청준의 장흥 집으로 가는 고갯길에 영상에 잡히지 않아 청산도에서 촬영했다는 영화 뒷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올봄에도 노란 유채꽃이 펼쳐지는 청산도에서 남도의 판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展

ACC 장애 경계 허물다...오는 17일부터 전시

무장애 · 장애 · 참여 · 상호작용 연구 작가 5인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오는 17일부터 연다.

ACC는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를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복합전시6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특히 ‘배리어 프리(무장애)’를 보조수단이나 장치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장르로 구축해 더욱 의미 있다.

전시장에는 어린이와 시각장애인 참여자를 위해 벽면에 촉감바를 설치해 전시의 동선을 안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기관을 촉감타일로 제작했다.

전시 주제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타인과의 관계에

서 만들어지고 변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김원영 작가의 책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2024)’에서 발췌했다.

전시는 무장애 · 장애 · 참여 · 상호작용 예술을 연구해 온 국내외 5인의 작가들의 신작과 대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엄정순 작가는 ‘코 없는 코끼리 no.2’와 드로잉 작품을 통해 600여년 전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의 이주 서사가 담고 있는 혐오, 분리,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해미 클레멘세비츠 작가는 눈과 귀의 근본적인 관계와 언어에 관심을 두고 신작 ‘레도(토토포노로지 #4)’를 통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대응, 지각적 다양성을 부각한다.

송예슬 작가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 공기조각’과 신작 ‘아슬아슬’을 선보여 시각 중심의 기존 예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비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아야 모모세는 몸의 문제를 탐구하며 의사소통 불균형, 타인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격차를 탐구하는 작가다. 그의 작품 ‘소셜 댄스’는 한국론 텐즈집근성 연구센터와 협력해 시각언어인 수어를 음성설설로 구현했다. 끝으로 김원영 · 손나예 · 여혜진 · 이지양 · 하은빈 작가의 작품 ‘안녕히 영키기’는 워크숍을 전시로 확장한 작품이다.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특성의 몸과 마음을 가진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 움직임, 글쓰기,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조선주 기자

함평군립미술관, 한희원 기획전 ‘빛과 안식’

내달 25일까지 특별전 운영

함평군이 삶과 예술의 근원적 메시지를 담은 한희원 작가의 기획전 ‘빛과 안식’을 개최한다.

함평군은 한희원 작가의 기획전 ‘빛과 안식’이 함평군립미술관에서 5월 25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함평군립미술관은 한희원 작가의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기획전은 2023년 이후 한희원 작

가가 새롭게 전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자리로, 탄생과 사랑, 생의 시간과 안식을 아우르는 인간 삶의 근원적 질문을 다루고 있다.

기존의 묵직한 색채에서 벗어나 빛과 자연을 소재로 한 점자 밝고 따뜻한 색조를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 삶과 현실을 고민해 온 작가가 마침내 도달한 평온과 위로의 순간을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함평·지대만 기자

스케치북과 펜으로 전하는 ACC와 도심 풍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를 오는 20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

에서 연다고 밝혔다. ACC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광주어

반스케치&드로잉’과의 협력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시에는 광주·전남 지역 이외에도서울, 인천, 고양, 부산,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91명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전시 주제는 ‘어반드 로잉&아트상품전’으로, ACC와 도시 이야기를 담은 260여 점의 작품과 그 그림을 소재로 개발한 아트상품 70여 종도 만나 볼 수 있다.

/조선주 기자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디벨로라이 (031)466-100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mamaeil@naver.com

지국안 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화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춘.....371-93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 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국 성...010-560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